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2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상 수 도 사업본부	담 당 자	• 재해예방팀장 김수정 ☎720-2511 • 담당자 임한빈 ☎720-25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가뭄 겪는 전남 완도에 ‘인천하늘수’ 1.3만병 지원

-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에 인천하늘수 1.8리터 1만 3천 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남부 도서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먹는 물 기부 릴레이’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1.8리터 병입 인천하늘수 1만 3천 병을 지원해 총 23,400리터의 먹는 물을 기부한다.

전라남도는 50년 만에 가뭄 일수 최대를 기록하며 저수지, 지하수, 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된 상황으로, 특히 전남 완도군 보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일 급수, 4일 단수’ 제한 급수가 진행될 만큼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인천하늘수 1만 3천 병은 2,694명의 보길도 주민이 1주일 이상 마실 수 있는 분량이다.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친환경 페트병에 담은 병입 인천하늘수는 단수 재해 지역과 관내 도서 지역의 비상 급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인천하늘수 3만여 병을 지원한 바 있다.

이용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오늘 당장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남부 도서 지역 주민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드리고자 인천하늘수도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다”며, “오랜 가뭄으로 전국적인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니, 시민 모두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귀히 여기고 물 절약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붙임> 보길도 ‘인천하늘수’ 지원 사진

